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문을 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충실함을 통하여, 그리고 속죄의 권능에 의해 우리는 영광의 세 왕국 가운데서 하나를 상속받을 수 있다. (30~35분)**

노트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이 사망에 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 어떤 면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웠는가?
-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고통 또는 “쓰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읽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본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였던 자들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을 자신의 간증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고린도전서 15:5~11; 15:12~26; 15:35~42; 15:42~50**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서 성구를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부활이 물리친 “맨 나중 ... 원수”는 무엇인가?
- 부활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부활하면 여러 종류의 몸이 있게 됩니다. 부활한 몸이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몸은 내세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의 영광에 속한 몸과 달의 영광에 속한 몸과 별의 영광에 속한 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들은, 현재 인간의 몸이 ...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승영과 영원한 증식의 모든 권능을 지닌 해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은 요한이 묘사한 바와 같이 구주처럼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달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되어 해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의 몸보다는 더 빛날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2:253~254)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지만, 사망은 여전히 쓰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56절에서** “사망이 쓰는 것”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떻게 죄가 쓰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더블류 킴블 회장이 전한 경고의 말씀을 읽는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이 말은 만약 인간이 죽으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규정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다가올 세상에서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78년 10월, 109쪽. 또한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10쪽; 교리와 성약 42:44~48 참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망이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간증을 읽는다.**

“사망의 고통은 영생의 평안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죽음의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시간의 슬픔과 암흑을 꿰고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 몸에서 영이 떠나 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안, 곧 유일하게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92쪽 참조; 또한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67쪽)

예수님은 합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고린도전서 15:20~22(성구 익히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부활할 것이다. (10~15분)**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지적이거나 무식하거나, 또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브라이언 에이치 스튜이 편, 월포드 우드럽,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다른 사람들의 설교 모음집, 전 5권 [1987~1992년], 4:224~225)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생각한다. (에베소서 1:17, 19~20; 베드로전서 1:20~21 참조)

**고린도전서 15:29(성구 익히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0~15분)**

다른 교회에서는 행하지 않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교회 의식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고** 답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바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 우리는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다음 성구를 읽는다. **요한복음 3:5; 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124:28~31.** 성구에 대해 토론을 한 후, 다음 해설을 나눌 수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한 친구들이 그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즉시,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65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알려져 있었으며, 주후 379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성스러운 교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하기까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교리, 2:145)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러한 신성한 침례는 어디에서 수행되는가?
- 우리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은 그들을 위한 대리 침례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다녀온 학생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1:1~11, 21~22; 2:1~11.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도움을 준다. (30~35분)

여러분의 삶에 슬픔, 고통,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 성신은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는가? (요한복음 14:16~18, 26~27 참조)

누가 성신을 보았으며 또 왜 보았는지를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훗날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들려준 다음 실화를 읽는다.

젊은 어머니가 남편과 네 자녀를 남기고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이 젊은 가족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에 관해 의아해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서 연단으로 갔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슬픔과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아내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부드럽고 평화로운 영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해나갈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이 남편에게 임했던 위로의 영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대의 영원한 동반자”, 성도의 빛, 1981년 3월호, 6쪽)

- 이 이야기에서 누가 위로를 주었는가?
-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신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련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읽는다.

- 위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7절과 3~4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를 가져다주었는지를 찾아보면서 8~11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음행으로 파문되었으며(고린도전서 5:1~6 참조), 그곳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심히 꾸짖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적었다. 고린도후서 2장

6~8절을 읽고 질문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였는가?
- 그들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 그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7절)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9~11절을 읽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보다 유리하게 되는가?
- 어떤 방법으로 사탄은 유리하게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7~11절을 교리와 성약 64편 9~10절과 함께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64편 9절을 읽고 또 질문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왜 더욱 커다란 죄인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향한 그 이웃의 발전을 막는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악마같은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동기는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영혼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그에게 속죄라는 용서의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철학은 영혼을 파괴하려 고안된 불순한 동기에 젖어 있는 것이다.” (리안 지 오펜과 시 맥스 칼드웰, 교리와 성약의 신성한 진리, 전2권 [1993년], 1:314)

-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살인보다 큰 죄가 될 수가 있는가?
- 간음한 자, 또는 어린이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간음 또는 어린이 학대보다도 큰 죄가 될 수 있는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죄는 매우 큰 죄이지만,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게 된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써 용서하지 않는 영을 사용한다.

동정심에 대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설명을 읽는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참된 동정심은 참된 성도의 표시이다. 그것은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슬픔에, 그것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 애정, 그리고 친절을 보이는데에 있다.” (몰몬 교리, 152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은 자신의 먼젓번 서한에 대한 확인 편지로 고린도후서를 적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소개, 174쪽; 고린도후서 1:1; 10:1 참조)

대상.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독자와 같은 사람들, 즉 교회 회원들(고린도후서 1:1 참조)과 또한 아가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후서를 적었다. 아가야는 본래 그리스의 모든 지방을 포함하는 로마의 영토였다. 그릇된 교사들의 고소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날로 커져갔다. 바울은 이 고소에 대해 답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히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적었다.

역사적 배경.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직후에 그는 가까운 친구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어서 자신의 편지를 잘 받아보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였다.(고린도후서 7:13, 15 참조) 바울이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났고(사도행전 19장 참조), 그는 마게도냐로 피신을 하였다.(고린도후서 1:8~11 참조) 디도가 그와 다시 합류하였을 때(고린도후서 7:6 참조)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릇된 교사들이 그곳에서 교회로 침투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 속기 쉬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 교사들은 가난에 쪼들린 예루살렘 성도들을 원조하기 위해 모은 돈을 취하였다고 바울을 고소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도로서의 그의 권세에 도전하였다. 디도가 가져온 걱정을 들은 후에 바울은 서기 55~57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고린도후서로 알려진 이 서한을 적었다.

특징. 바울은 여느 다른 편지에서보다도 이 편지에서 자전적인 내용을 더욱 많이 썼다.(고린도후서 11~12장 참조) 그는 복음 안에서 그의 권세, 그리고 복음의 대업에 대한 그의 충성심에 대해 의심을 하는 고린도의 지역 비판자들에게 답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고린도후서 3:6, 17~18.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10~15분)**

1847년 2월에 브리검 영은 자신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에게 말하였으나, 선지자는 그에게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브리검 영은 형제들에게 전하여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에게 물었다. 브리검 영의 일지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읽는다.** 기울어진 글자로 된 단어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조셉이 우리에게 나아와서 매우 진지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고] ... 말하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41쪽)**

조셉이 브리검 영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생각해 본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읽고** 도움을 받는다. 답을 찾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조셉 스미스가 꿈을 통해서 브리검 영에게 말하였던 내용을 **계속해서 읽는다.**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에 대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신이 저들에게 올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 수 있게 하라고 말하십시오. 저들은 다른 모든 영과 주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들의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는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악의, 증오, 투쟁,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며 저들의 모든 욕망은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낳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의 영을 따르려면 옳은 길로 가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사람들에게 성령을 지니라고 말하십시오"** (브리검 영의 역사 원고, 1846~1847년, 엘든 제이 왓슨 편집 [1971년], 529~530쪽;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08쪽)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다시 살펴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여기에 속하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두 가지 축복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18절을** 읽는다. 영에 따라 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더 큰 축복에 대해 생각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눔으로써 끝맺는다.

**"영은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98쪽)

**고린도후서 6:16~7:1, 8~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며, 또한 참된 회개로 이끈다. (20~25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이라고 노트에 적는다. 이 두 가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고 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근심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본다.

결혼을 위한 성전 추천서 접견에서 한 젊은 자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몇 가지 죄를 감독에게 고백하였다. 그 죄들은 감독이 추천서를 거부해도 충분할 정도의 것으로, 감독은 그녀가 충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굉장히 난처해 하며, 자신은 이미 회개를 하여 오랫동안 그 죄들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식 및 피로연 초대장이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녀는 결혼식 계획이 연기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심과 혼란을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감독은 단순히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죄를 그치는 것이 완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그녀에게 참된 회개의 과정을 진심으로 시작하라고 권유하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접견에서 젊은 자매는 이 점에 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같은 상황에서 감독이 추천서를 보류하는 것이 왜 적절한 것이었는가?

**고린도후서 7장 8~10절을** 읽는다. 바울은 자신의 먼젓번 서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설명을 읽는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비참함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붙잡혀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죄를 모르셨던 구주, 곧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번민과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온 땀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교리와 성약 20:37)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신적이며, 또한 영적으로 실제적인 모진 고통인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72쪽)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사람은 왜 참된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껴야만 하는가?

• **엘마서 42장 29절을** 읽는다. 엘마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는가?

• 단지 죄를 그치는 것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회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만 한다. ..."**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또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깊은 가책을 느낄 때에 참된 회개가 따른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음을 후회한다. ... 회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떠한 것도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로버트 이 밀레트, "속죄의 교리: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의 계시", 로버트 이 밀레트 및 켄트 피잭슨, 경전 연구, 제2권, 값진 진주 [1985년], 124쪽)

• 우리 자신이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방해가 되는가?

•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는다. 우리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데 교만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데려다 주고 또한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8~9장. 성도들은 복음 원리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20~25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는다.**

-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왜 신앙이 필요한가?
-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사람이 겪는 이 필멸의 세상에서의 시험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시험 가운데는 돈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부에 대한 추구,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커다란 부로부터 오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모사이사서 3:19) 될 때, 그는 더 높은 율법에 따르게 된다. 돈이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그의 종일 뿐이다. 그는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가 되는 것이다” (신약교리 주해서, 2:435)

학생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베푸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4~15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울은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기를 원하였는가?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주님은 ... 지구가 사람의 자의대로 소유되거나 관리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며,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식과 채권과 땅과 기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글렌 엘 런드, 순수한 종교 [1995년], 291쪽;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48쪽)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기에(교리와 성약 104:12~18참조),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읽는다. (누가복음 6:38 참조) 십일조를 내는 것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금식헌금을 내도록 한다.

**고린도후서 11~1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점과 시련을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어 내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다. (20~25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시나무 또는 영경귀를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시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어떠한 이유로 이 가시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경험한 것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육체에 가시”는 무엇인가? 이 구절에 대하여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조물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각 개인이 선과 덕행,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도록 항상 격려하는 순수한 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영이 왔던 곳에서 나오는 순수함의 근원으로부터 발산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범법을 통하여 오는 악이 이 순수한 영과 갈등을 일으키며, 영을 이기려 하며, 그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이 영을 그 아래 두려고 합니다. ... 이것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에 관해 말하면서 언급한 싸움으로, 그것은 영이 육체와 겨루며, 또 육체가 영과 겨루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교집, 18:258)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의 유형에 대해 생각한다.

**이더서 12장 27절**을 읽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본다. 자신의 괴로움이 떠나가기를 바울이 간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없애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련과 괴로움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영향을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가?
- 바울은 괴로움에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읽는다. 바울의 괴로움에 밑줄을 긋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복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 여러분의 대답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 견디기 위해 바울에게 어떤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생활에서 이와 같은 힘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고 또 자신의 시련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찾아본다.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다. **고린도후서 13장 5, 9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성도의 특성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여야 했다.(모사이사서 3:19)”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될 것이라, 31쪽)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 박해, 또는 육신의 약함이라도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게 될 것이다.